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음악 기능분석

임주희
서원대학교 실용음악과

Movie ‘Cinema Paradiso’ theme music function analysis

Ju-Hee Lim

Department of Applied Music,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의 ‘시네마천국(Cinema Paradiso)’에 사용된 영화음악을 아론 코플랜드(Aron Copland)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기능론과 현대의 대표적 영화음악의 기능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영화 장면에 따른 각각의 테마음악을 변주시키는 변주법과 기능론을 제시함으로써 영화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테마 변주 테크닉과 장면에 따른 기능론을 습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1960년대 <황야의 무법자>등의 서부영화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1980년대에 들어 <미션(Mission)>,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등에서 전성기를 맞았다고 평가되어진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테마음악의 변주를 통하여 주인공 인물의 내적 표현과 장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등 영화음악의 기능론을 다루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시네마 천국’에서는 테마음악의 다양한 변주를 통하여 영화의 일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분위기를 강조하여 장면의 연속성과 영화의 진행감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의 음악을 연구 분석하여 영화음악의 테마 변주법 연구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the five functions of film music as proposed by American composer Aaron Copland, and the application of these functions in the modern film Cinema Paradiso featuring music by Italian composer Ennio Morricone. Morricone has shown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in Western films such as the 1960s film A Fistful of Dollars and the top-rated 1980s films The Mission and Cinema Paradiso. Through his work, he maximizes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 in each scene by using variations of the theme music to effectively apply the functional theory of film music. Cinema Paradiso, especially, pursued the consistency and diversity of film at the same time. And it emphasized the specific atmosphere, intending to provide continuity in the scenes during the progress of the film. This thesis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variation technique in film music, and the functionality of film music from scene to scene, as used by Morricone, for students majoring in film music.

Keywords : Film Music, Ennio Morricone, Cinema Paradiso, Variations, Theme, Theme Music

1. 서론

본 윌리엄스(Dr. Vaughan Williams)는 영국민요를 주제로 한 그린슬리브스(Greensleeves) 환상곡을 작곡한 낭만주의 음악의 마지막 작곡가 다. 그는 근대 영국의 음악가중 가장 영국적인 작곡가로 불리 우는데 “영화는

바그너(Wagner)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예술의 결합을 잠재적으로 시사해 주는 종합 예술이다”[1] 라고 말을 했다. 21세기에는 수많은 영상매체들이 존재한다. 그중 영화는 영상, 조명, 촬영, 미술, 효과 등 수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음악은 수많은 구성요소와 더불어 영화의 예술성, 작품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Corresponding Author : Ju-Hee Lim(Seowon Univ.)

Tel: +82-10-9152-8959 email: jeyce@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18

Revised November 28,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한다.

영화음악이란 영화의 표현 효과 중 일부를 이루는 음악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작곡가가 그 영화를 위하여 작곡, 편곡해서 연주하는 창작음악과 비 창작 음악을 포함한다. 특히 영화음악을 포함한 영상음악은 영상을 보조하고 또 영상과 동시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순수 연주 음악과는 다른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네마천국은 1989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1990년 아카데미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및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1991년 영국아카데미상 작곡상을 수상하였다. 시네마천국은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음악계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가 맡았다.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 1928~현재)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휘자이며 음악감독으로 여러 공연음악과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난 엔니오 모리코네는 9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인 로베르토 모리코네(Roberto Morricone)의 재촉으로 산타 체칠리아의 국립 음악원(The 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에 들어가 고프레도 페트라시(Goffredo Petrassi)로부터 트럼펫과 작곡, 합창곡과 지휘를 배웠다가 14세 때에 정식으로 음악학교에 들어갔다. 그 시기는 가장 고달팠던 시절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비무장 도시가 맹폭격되는 힘든 시기였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공부하여 그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비범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전쟁 시의 경험이 그의 영화음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1956년에 마리아 트라비아(Maria Travia)와 결혼하였으며 삼 형제와 딸을 두고 있다. 마리아 트라비아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곡을 상호 보완 하는 많은 시(영화 ‘미션’의 라틴 문장 포함)를 지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안드레아 모리코네도 엔니오 모리코네를 따라 영화음악 작곡가가 되었으며, 1959년 독일 아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존 케이지(John Cage)에게 사사하고 이듬해에는 베네치아 라페니체 극장에서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초연하기도 하였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1961년 영화<일 페데탈로>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영화음악가로 출발했으나, 클래식을 전공한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명을 썼다고 한다. 이후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면서 할리우드가 정석처럼 여기고 있던 전통적인 작곡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Chime), 하모니카 등 새로운 악기들의 차용을 통한 서부 영화음악을 만들어 냈다. 대표적으로 <황야의 무법자(Fistful Of Dollars, 1964)>의 휘파람 연주가 바로 그것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양한 영화에서 패리디가 될 만큼 인상적인 멜로디를 구사하였다. 이후 할리우드 작품의 음악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헐릿’, ‘천국의 나날들’, ‘The Mission’, ‘언터처블’, ‘시네마천국’,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러나 유독 수상에는 인연이 없었다가 2007년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드디어 생애 최초의 아카데미 음악상과 2016년 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전기기타, 오보에, 팬플룻, 차임 등을 즐겨 쓰며 어렵지 않고 단순한 멜로디를 사용하면서도 탄탄한 베이스와 바로크적인 감수성으로 잔잔한 멜로디를 즐겨 쓴다. 그의 작품으로는 ‘황야의 무법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1984’, ‘The Mission 1986’, ‘Cinema Paradiso 1988’, ‘Love Affair 1994’ 등의 음악이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500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으며 국내에서도 20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음악 2위에 꼽힌 시네마천국을 분석하려한다. 그 중에서 메인테마를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로 변주되는지 테마 변주기법을 분석하고,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 중 ‘시네마천국’에 사용된 테마곡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500편이 넘는 주옥같은 영화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였다. 그는 할리우드가 정석처럼 여기고 있던 전통적인 작곡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악기들의 도입을 통한 영화음악을 만들었다. ‘황야의 무법자’ 등의 여러 서부영화에 이어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들려오는 플룻 연주는 그의 영화음악의 정점이라고 평가를 받았다.[2] 그리고 이밖에도 ‘Love Affair’의 피아노 솔로와 너무나도 유명한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Love Theme), ‘로리타(Lolita)’ 등의 영화음악은 그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다. 그중에서 ‘시네마 천국’은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영국아카데미상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테마의 변주가 많이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논문의 연구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1.2 연구방법

영화음악이 영화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영상의 의미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영상과 음악이 상호 의존적 입장에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할 것이다. 특히 테마음악의 변주가 그 영화의 화면 안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음악 감독이 영화의 이야기 전개에 맞추어 어떠한 효과를 주고자 했는지 영화음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감독의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테마음악의 변주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영화의 장면과 상황 등, 영화의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 보았다.

변주기법의 연구방법으로는 장면별로 인물들과 장면 상황의 일관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메인테마의 반복과 메인테마와 변주방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영화는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찍은 단편들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데 테마의 변주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장면과 장면사이를 연결시켜 시공간적 연속성을 나타내고자한 곳을 분석한다[3]. 영화음악은 그 장면 전반에 알맞은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복되는 테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음악적인 재료, 즉 악기, 음색이나 주제선율 등을 변주를 시키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영화 전체에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변주된 음악요소들을 통해 감독이 영화 내에서 표현하고자 한 음악적 의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선율, 음색, 템포, 리듬, 악기구성 등의 다양한 편곡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테마음악을 어떻게 변주하였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테마 변주가 영화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테마의 변주가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영화 ‘시네마 천국’의 음악적 배경

영화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 1988)’은 이탈리아의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Giuseppe Tornatore)의 자전적인 두 번째 영화로 그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가던 행복한 시절에 대한 향수 어린 회상이 담겨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에 시칠리아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 속에서 꿈을 키웠던 어린 토토(Salvatore Cascio)와 늙은 영사기사 알프레도(Philip[pe Noiret]와 그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우정을 성장한 토토의 회상으로 전개된다. 시네마천국의 감독이었던 주세페 토르나토레는 엔니오 모리코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음악이 완성되는 순간 <시네마천국>도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2]. 엔니오 모리코네는 본 작품을 비롯해 총 16곡의 작품을 작, 편곡하였다.

시네마천국은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이 끝나면서 OST의 보너스 트랙에 수록되어져 있는 스트링버전의 메인테마와 함께 영화가 시작된다. 메인테마인 ‘Cinema Paradiso’는 총 6장면에 사용되었는데 주인공 토토가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테마와 주인공테마, 그리고 러브테마를 중심으로 변주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벨(Bell)소리를 이용한 효과는 ‘아론 코플랜드(Aron Copland)’가 주장한바 있는 ‘영화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사용 되었다. 영화 속에서 성인이 된 토토가 과거의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그 장면에서 시간적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며, 각각의 시퀀스가 연결될 때 마다 테마음악과 함께 벨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는 성인이 된 주인공과 어린 시절의 주인공을 주제적으로 묶는 역할도 함께 하였다.

2.2 영화 ‘시네마 천국’의 메인테마 ‘Cinema Paradiso’ 음악분석

이 영화에서 음악의 사용은 크게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테마인 ‘Cinema Paradiso’와 주인공 ‘토토’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Childhood and Manhood’와, ‘Maturity’,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연인 ‘엘레나’가 등장할 때 나오는 ‘Love theme’ 등 4곡이다. 시네마 천국에서 벨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인공 토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각기 다른 시퀀스를

연결하면서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동기부여의 상이한 측면들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게 하였다. 메인테마는 주인공 토토와 극장을 중심으로 중요 장면마다 사용되었다. 각 장면마다 악기의 음색과 템포에 변화를 주어 연주함으로써 장소와 인물의 상징인 라이트 모티프(Leit Motif) 기능으로 사용하여 상이한 시간대들의 중첩이 보편화 되도록 하였다[5].

영화에서 메인테마음악이 등장하는 시점은 다음 표와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그 테마곡과 변주를 서론의 연구방법과 관점에서 큐시트 번호순으로 분석할 것이다.

Table 2. Cue Sheet & Track No.

No.	Time	Scene	Tr. No
1	00:01:00	Intro	1
2	00:45:02	Walking Toto with mom	1
3	00:56:30	reopened cinema	1
4	01:47:36	Toto in front of the cinema	1
5	01:50:48	Toto in cinema	1
6	01:56:57	An exploding theater	1

Table 3. Track No. used in the cue sheet

No.	Title
1	Cinema Paradiso 02:59

2.3 메인테마 ‘Cinema Paradiso’ 사용과 변주기법

메인테마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어 ‘시네마 천국’의 서곡 역할을 하였다.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면서 영화의 중간에 재개관이 되는 ‘Cinema Paradiso’라는 극장의 네온사인에서 화면이 멈추고 주인공 ‘토토’의 어머니가 통화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된다. 음악은 2마디의 피아노와 첼로 반주 후에 스트링으로 연주가 되어 지며 메인멜로디는 두 도막 형식의 1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Fig. 1이 그 악보이다.

첫 번째 14마디의 메인테마가 연주된 후 색소폰과 스트링의 유니즌으로 다시 한 번 연주되어진다. 메인테마의 조성은 Bb Major로 첫 번째 한 도막은 I-IV-IIIm-V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번째 도막에서는 I7의 7음을 IV의

5음으로 연결시키어 변화를 주었다. 동형진행[7]의 형태이나 멜로디의 음고에 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연주기법의 특이점으로는 스트링 연주에서 비브라토를 느끼고 넓게 연주하고 강조함으로써 1940-50년대의 느낌이 묻어나게 하였다.



Fig. 1. Main Theme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적인 감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Fig. 2. Walking ToTo with Mom

‘Cinema Paradiso’가 등장하는 부분인 큐시트 No.2는 전쟁의 참혹한 장면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의 주인공 ‘토토’가 극장 영사실에서 ‘알프레도’ 없이 영상을 돌리다가 우연히 상영되는 영화의 뉴스에서 전쟁의 전사자 소식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토토’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사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며 어린 ‘토토’의 손을 잡고 울며 걷는 장면이다.



Fig. 3. Unison Playing in Main Theme

이 장면에서의 메인 테마의 변주기법으로는 단일 스트링 멜로디의 음색을 프렌치호른과 피아노의 유니즌으로 연주를 하였으며 곡의 속도를 늦추어 연주를 하였다. 곡의 속도는 대조나 강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메인테마의 속도를 하나의 구조적 장치로 사

용하였다[7]. 남편을 잃은 ‘토토’의 어머니의 슬픔을 강조하였으며 길가의 영화포스터를 보고 웃는 철모르는 어린 ‘토토’의 모습과 대비를 시켰다.



Fig. 4. Poster of Gone with The Wind

큐시트 No.3은 불타고 없어진 옛 극장 자리에 새롭게 극장을 지어 개관식을 축하하는 장면이다. 영화의 시작에서 서곡 역할을 하며 극장의 네온사인에서 화면이 멈추며 연주되었던 메인테마는 이 장면에서도 새롭게 재개관되는 극장의 네온사인이 클로즈 업 되면서 연주된다.

이 장면에서도 메인테마는 특정 장소나 인물을 상징하는 라이트모티프(Leit Motif)기능을 하였다. 특히 이 기법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감독이었던 ‘맥스 스타이너(Max Steiner)’가 처음 시도하였다. 이는 영화의 특정 장소나 주요등장인물의 성격에 맞는 모티프를 주제로 하여 테마음악을 농장장면이 나올 때마다 영화에서 연주되었다. ‘Tara’s Theme’와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성격을 부여한 ‘Scarlet’s Theme’등의 음악이 그것이었다.

‘시네마 파라디소’에서 감독은 큐시트 No.2의 주인공 ‘토토’가 어머니와 폐허를 걷는 장면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포스터를 삽입하고 메인테마가 연주되게 함으로써 존경의 의미를 더하였다. 변주기법으로는 메인멜로디의 음색을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여 서곡의 역할을 하였던 스트링 연주의 멜로디와 차별하여 다양성을 시도하였다.

1987년 클라우디아 코브만(Claudia Gorbma)이 영화 음악사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악곡의 흐름들의 기능을 소개한 리스트를 제안하는데, 그 리스트에서 ‘음악은 통일성의 한 요소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영화 내내 나타나는 라이트모티프가 영화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4]. 여기에서

는 시네마 파라디소 극장이 나올 때마다 메인테마를 연주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하며 영화에 통일성을 준 것이다.

큐시트 No.4에서는 알프레도의 운구차가 파라디소 극장 앞에 멈춰서면 파라디소 극장의 간판이 클로즈업되면서 메인테마가 다시 한 번 사용 되는 장면이다. 여기에 사용된 테마음악은 큐시트 No.1에서의 메인테마와 동일하게 스트링으로 연주가 된다. 이는 영화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영화의 시작과 함께 파라디소 극장의 간판과 메인테마를 연주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 부분부터 메인테마가 흐르다가 파라디소 극장의 간판이 클로즈업되면서 메인테마가 끝나게 된다. 그런데 큐시트 No.4에서는 폐허가 된 파라디소 극장의 간판이 클로즈업 되면서 메인테마가 연주된다는 것이다.



Fig. 5. String Play without Piano.

이때의 메인테마는 앞서 언급한 라이트모티프(Leitmotif)의 기능으로 사용 되었다. 즉 영화의 통일성을 두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로 메인테마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상적 기능과 영화의 이야기 안에서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상상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변주기법으로는 피아노반주가 빠지고 메인 멜로디의 첫 음을 길게 연주를 하여 음가에 변화를 주었다. 기능으로는 주인공 ‘토토’가 폐허가 된 극장을 쳐다보며 옛 회상에 잠기는 장면과 연결시키는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큐시트 No.5에서는 성인이 된 주인공 ‘토토’와 ‘알프레도’의 부인과의 대화 장면에서 폐허가 된 극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연결되면서 메인테마는 시공간적 연속

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8]. 뿐만 아니라 메인테마는 곧 폭파될 극장 안을 토토가 거니는 장면까지 연주가 되면서 앞서 언급한 특정 장소나 인물을 상징하는 라이트모티프의 기능으로 영화의 일관성을 두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로써 사용 되었다. 그리고 극장 안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테마음악이 피아노 솔로로 연주 되면서 숨겨진 상황을 암시 한다[6], 이는 ‘토토’가 곧 폭파가 될 극장 안을 거닐지만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는 숨겨진 상황을 나타내는 영화 음악적 기능을 한 것이다.

변주기법으로는 모든 악기는 배제하고 피아노 솔로로 연주를 하였으며 점점 느리게 연주하는 ‘랄렌타도(rall.)’와 ‘테누토(tenuto)’ 주법으로 속도를 변화시키는 기법을 택하여 주인공 ‘토토’가 옛 회상에 잠길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역할을 하였다[9].



Fig. 6. Piano Solo in Main Theme[11]

마지막으로 큐시트 No.6에서는 극장 폭파장면에 메인테마가 연주된다. ‘토토’와 마을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극장이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대사는 배제되고 극장 폭파음과 메인테마의 멜로디가 연주된다. 극장이 폭파되어 사라지는 장면까지 메인테마를 사용하여 라이트 모티프기능을 하게 했으며 영화 전체에 일관성을 두게 하였다.

변주기법으로는 음색과 속도를 바꾸는 방법을 택하였다.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메인 멜로디를 알토 색소폰을 사용하여 느리고 부드럽게 연주하였으며 연주 내내 강한 폭파음과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중간에는 스트링과 피아노의 유니즌 연주를 추가하여 극장 폭파장면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토토’와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10].

The figur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five instruments: Alto Saxophones, Violin, Viola, Cello & C. Bass, and Piano. The score is written in 4/4 time and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initial melodic development.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ic line with some rhythmic variations. The third system, starting at measure 7, shows a change in time signature to 2/4, with the saxophone and piano parts continuing the melodic theme while the string parts provide harmonic support.

Fig. 7. Alt, Sax Playing and String, Piano Play.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테마음악의 변주기법을 분석하여 영화 내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테마음악의 변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마음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테마 변주를 하면서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로는 원곡 멜로디의 음고는 그대로 두고 악기, 음색 등의 변화를 주어 사용하였다. 또한 주요 인물과 연인이 등장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영화 전체에 일관성을 갖게 하였다.

둘째, 테마음악의 변주를 통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는데 변주를 통하여 인물 내부 심리, 감정의 변화,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을 위한 구조적인 장치로는 메인 멜로디를 연주함에 있어서 음색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 그리고 연주기법-랄렌탄도, 테누토-등에 변화를 주는 기법을 사용 하였다.

셋째, 테마음악의 변주를 사용하여 장면의 연속성과 진행감을 주고자 하였다.

영화는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찍은 단편들을 연결시켜 영화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데 테마의 변주를 사용하여 영화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장면과 장면 사이를 연결시켜 시공간적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방안으로는 음색과 악기 연주법의 변화 등을 사용하였다.

넷째, 테마음악을 변주하여 특정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메인테마의 변주를 방안으로 영화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특정한 분위기, 상황,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구조적인 방안으로는 악기의 구성과 템포의 변화, 그리고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 음색의 변화, 리듬의 변화 등을 시도하였다.

토마스 뉴먼(Thomas Newman, 1955~현재), 탄둔(譚盾, 1957~현재), 그리고 한스 짐머(Hans Zimmer, 1957~현재) 등 유명 음악가들은 영화의 특정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세계 여러 지역의 민속음악 요소를 활용하거나 디지털 음악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러한 기법은 그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영화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음악인 ‘Cinema Paradiso’를 분석하여 테마음악 변주기법과 기

능적인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쓰면서 아쉬운 점은 사운드트랙의 여러 곡 중 메인 테마음악을 선택하여 연구 분석하였기에 연구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음악의 교과서라고 평가되어지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영화음악과 테마음악의 변주기법과 기능들을 분석하려는 음악학도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Manvell Roger, Huntley John, (The) Technique of film music, 9, Korean Film Council, 1990.
- [2] Park, Sin-young, Cinema Music, 86, 17, Sallimbooks, 2005.
- [3] J.P.E. Harper-Scott, Jim Samson, An Introduction to Music Studies, 274, Eumaksekye, 2014.
- [4] Steven Jay Schneider, Ian Haydn Smith, 1001 Movies You Must See Before You Die, Maroniebooks, 2005.
- [5] [Gilles Mouellic, La Musique De Film, 49, 82, Ehwa Womans Univercity Press, 2006.
- [6] Han, Sang-june, Understanding Film Music, 144, 150, hannarae, 2000.
- [7] Jack Perricone, Melody in Songwriting, 41, 51, Berklee Press, 2000.
- [8] Sung, Kiwan, Film Music 30, hannarae, 2003.
- [9] Beom-Jin Jo , T.S. Cho. A Study on Arrangement through Avoid Note and Tension Note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349-35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349>
- [10] Hae-Kwon Lim, Tae-Seon Cho A Study of Individuality of Seung_Hwan Lee's Music Represent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406-41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409>
Records
- [11] Ennio Morricone, Cinema Paradiso, General Music, 1989.

임 주 희(Ju-Hee Lim)

[정회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음악작곡학사)
- 1995년 8월 : USC(University of California) 음악대학 재즈학과 (재즈작곡, 피아노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영화음악 “친구” “아나키스트” “어린신부” “댄서의 순정” “바람의 파이터” “울학교 이터” “아카시아” “기생령” 등 다수 작곡
- 2013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교육, 실용음악작곡, 영화음악